

부문별 주요 기사

2월 1일~2월 28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2월 1일~2월 28일

대내경제 65

<공식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국산화 운동

<식량>

홍수·가뭄 피해 우려

'먹는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북한

<북한의 장마당>

활발한 북한의 장마당

장마당으로 대북제재 버텨

대외경제 67

<대북제재>

대북사업 연장 보류

제재 여파로 미진한 대북투자

북한, 7년 연속 자금세탁·테러자금 위험국 지정

<대외교역>

북한산 석탄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중국
북한-EU 교역 3년째 감소...10년 전 1/10 수준
전년 대비 97% 감소한 미북 교역
북한의 무기 밀수출

<북중관계>

'대북 개방정책'을 천명한 중국 지린성
재개된 북중 육로 및 해상 노선

대내경제

<공식경제>

연합뉴스(2.1)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국산화 운동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국산장려 운동을 강조한 바 있음.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런데 이 국산품 애호운동은 오히려 북한의 경공업공장과 외화벌이 기관들을 궁지에 내몰고 있다는 보도가 있음. 『RFA』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산 원료에 의존할 수 없는 여러 공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또한 원료를 국산화시켜도 국산품의 품질이 중국 상품이나 수공업 제품을 따라갈 수 없어 장마당에서 인기를 끌지 못한다고 전함. 이에 북한의 국산장려 운동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고 함.

<식량>

VOA(2.3)

홍수·가뭄 피해 우려

『VOA』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이 올해도 기상이변 현상인 ‘엘니뇨’의 영향으로 홍수나 가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상황은 기후변화와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악화되고 있다고 함.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로 138명이 사망하고 6만 9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2015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홍수 피해를 입은 바 있음.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 북한의 주요 저수지 수위도 매우 낮아져, 2016년 1월 기준으로 물 확보량이 필요량의 6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함. FAO는 북한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의 기상정보와 계절별 곡물 상황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밝힘.

‘먹는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북한

『MIDAS』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상황이 김정은 체제 들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 향상에서 보다 큰 진전을 이룩해야 한다”며 식량생산에 대한 강조를 한 바

있음.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북한의 2016년 추정 곡물생산량은 2015년 450만톤에서 31만톤 증가한 481만톤으로 나타남. 이는 북한이 비료를 포함한 농사에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AO와 WFP에 따르면 북한의 2016년 식량 수요량은 549만 5천톤으로 여전히 약 69만톤 가량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그러나 식량 생산량이 꾸준히 늘고 있고, 부족분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메울 수 있기 때문에 1990년대처럼 심각한 식량난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됨.

〈북한의 장마당〉

RFA(2.3), KBS(2.6)

활발한 북한의 장마당

2015년 말 400개 수준이던 공식 장마당이 2016년 말 기준 530여개로 증가한 것으로 소식통은 전함. 이는 대북제재로 당국의 배급망이 붕괴하고 외화벌이가 어려워지면서 북한 당국의 장마당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임. 한 조사에서는 장마당 상인들로부터 벌어들이는 장세수익이 하루최고 22만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임.

장마당으로 대북제재 버티

2016년 강화된 대북제재에도 북한경제를 지탱해 준 것은 시장활성화 및 장마당 경제라는 분석임. 장마당의 환율과 쌀가격이 2015년보다 낮은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통화까지 하락이 완화되었다는 분석임. 이는 2009년 화폐개혁 실패 이후 북한 상당수의 주민들이 원화대신 달러화·위안화를 일상통화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북한 당국이 이를 묵인해오면서 시장이 활성화 되었다는 분석임.

대외경제

<대북제재>

VOA(2.3, 2.8, 2.28), RFA(2.7)

대북사업 연장 보류

『VOA』의 보도에 따르면 유엔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 사업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함. UNDP는 ‘2011~2015 북한 국가사업’을 지난해까지 진행해 왔으며, 이의 1년 추가 연장을 위해 UN에 공식 신청한 바 있음. 그러나 유엔은 지난 1월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기 집행이사회에서 대북 사업 연장 결정을 보류했으며, 오는 6월 열리는 정기 집행이사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함. 이 ‘2011~2015 북한 국가사업’은 이미 한 차례 연장되어 운영되어 온 바 있으며, UNDP는 “국제 은행 거래와 물품 획득, 조달과 관계된 2016년 사업 운영 환경 변화”를 이유로 들며 프로그램의 1년 연장을 신청했다고 함.

한편, 대북사업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로 인해 구호활동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중국 은행들이 북한과 관련된 거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특히 북중 국경 은행들이 북한과 관계된 거래를 매우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구호단체들은 중국에서 구입한 지원 물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국 은행에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이들 은행이 북한과 관련된 어떤 거래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임.

제재 여파로 미진한 대북투자

『RFA』는 유럽기업이 제재의 여파를 우려해 대북투자를 주저하고 있다고 보도함. 네덜란드의 투자자문회사 GPI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외국 기업의 대북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힘. 특히 유럽 기업인들이 대북제재의 내용 보다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크기 때문에 대북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함. 대북투자자들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투자 강점으로 뽑으며, 네덜란드의 대북투자 기업은 주로 노동집약 산업과 농업에 진출해 있다고 함.

북한, 7년 연속 자금세탁·테러자금 위험국 지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2011년 이후 7년 연속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함. 특히 이란이

지난해 ‘고도 주의’ 대상국가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지면서, 북한은 유일하게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남게 됨. FATF는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이에 대한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불법활동이 제기 하는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함.

<대외교역>

VOA(2.9, 2.18, 2.28), 동아일보(2.10), 세계일보(2.18), 중앙일보(2.23)

북한산 석탄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중국

중국 상무부는 2월 18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모두 금지한다고 발표함. 상무부에 따르면 이 조치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와 중국의 대외무역법, 상무부, 해관총서 제81호 공고에 근거해 취해진다고 밝혔으며, 19일부터 공식 발표된다고 함.

만약 실제로 중국이 이 조치를 이행한다면 북한 외화벌이에는 엄청난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됨.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북한 전체 수출의 40%, 즉 연간 약 10억달러 어치가 수출되고 있음. 중국은 지속적으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제대로 이행해 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는데, 북한산 석탄 수입을 모두 금지한다는 이번 발표는 매우 강력한 것으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특히 이번 조치는 북한의 2월 12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13일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뒤 나왔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한편, 이 조치가 발표되기 전 중국의 평성성남액화가스는 북한 봉화화학공장과 연간 4,000톤(약 250만달러) 규모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입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어, 중국이 우회적으로 북한의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을 마련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 연간 100~200만달러 규모의 LPG를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전년 대비 97% 감소한 미북 교역

미 상무부 산하 인구통계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2016년 미북 교역액은 총 13만 9,334달러에 그쳐 2015년 475만 2천달러에 비해 무려 97% 감소함. 약 14만달러의 교역액 중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으며, 모두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으로 밝혀짐. 이 또한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대부분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알려짐. 품목별로 살펴보면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물품은 ‘주요나 음료’와 ‘실험실 연구장비’ 그리고 ‘상업용 인쇄물’이 전부라고 『VOA』는 밝힘. 통상적으로 미국의 대북 수출 실적은 대부분 ‘민간기구의 구호 또는 자선 지원물품’으로 기록되었으나 2016년 초부터 이어진 강력한 유엔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단독 대북제재로 인해 2016년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

북한-EU 교역 3년째 감소...10년 전 1/10 수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6년 북한과 유럽연합의 교역액이 전년대비 6.6% 감소한 약 2천 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양측의 교역액은 10년 전인 2006년과 비교해 10분의 1수준이며, 2006년 정점에 오른 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북한의 유럽연합 수출 1위 품목은 화학 관련 제품으로 북한의 대 유럽연합 수출 가운데 약 40%(약 210만 달러)를 차지했음. 반면에 북한의 대 유럽연합 1위 수입 품목 역시 화학 관련 제품으로 약 840만 달러를 기록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따라 교역이 제한되는 철광석, 석탄 등 광물 수출은 2014년에 이어 3년 연속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됨.

북한의 무기 밀수출

이스라엘 군사정보 웹사이트 테브카파일에 주장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군사조직이 1월 초 리비아와 이집트를 경유해 북한산 미사일을 대거 밀반입했다고 함. 이 주장에 따르면 하마스 군사조직은 북한의 대전차미사일인 ‘불새-2’를 밀반입했다고 추정하며, 지금까지 사들인 미사일만 해도 1,500여 대라고 함. 북한산 무기는 통상적으로 제3국으로 국적 세탁한 선박에 실려 홍해나 지중해를 거쳐 중동으로 유입되는데, 이때 수에즈 운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집트와의 관계가 중요함. 그런데 이집트의 시시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이후 북한과 거리를 두고 남한과 가까워지려하고 있어 북한의 무기 밀매가 과거만큼 수월하지 않다고 『동아일보』 기사는 분석하고 있음. 『중앙일보』 또한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이 소형 무기 수출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함.

〈외화벌이〉

연합뉴스(2.1, 2.22), 서울신문(2.22)

점점 어려워지는 북한의 외화벌이 및 관광사업

북한이 핵실험으로 강화된 대북제재로 외화벌이가 어려워지자 중국인 대상의 개방관광으로 외화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음. 북한은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평양·백두산·원산·금강산·묘향산·개성 등의 기존관광지와 더불어 국제관광특구·칠보산 등에서의 관광지를 개발해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함. 하지만, 김정남의 암살 사건으로 인하여 북한이 진행해오던 국외 인력송출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벌이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말레이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외국인 노동자인 리정철이 암살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임.

북한의 최대 무역상품인 석탄의 수출이 대북제재로 어려워진만큼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다양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이 대체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미국의 주간 타임즈는 현재 북한에서 활동 중인 해커가 6,800명에 이르고, 국제사기, 협박, 온라인 도박을 통해서 해마다 8억 6,000만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보도했음.

〈북중관계〉

연합뉴스(2.8), 매일경제(2.17)

대북 개방정책을 천명한 중국 지린성

중국 『진홍동북망』의 2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지린성 정부는 최근 창지투 개방선도구 전략 실시소조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올해 중점 추진사업 계획을 통과시켰다고 함. 이에 지린성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북한과의 경협을 추진할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음. 이번에 통과된 계획은 특히 남쪽 개방에 더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할애될 것이라고 언급되어 북한과의 경협 확대가 예상되고 있음.

재개된 북중 육로 및 해상 노선

2월 17일 중국 지린성 훈춘시정부에 따르면 훈춘 창리(創力)해운물류회사가 훈춘-나진-저장(浙江)성 닝보(寧波)를 연결하는 육상·해운 복합 컨테이너선박 운항을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재개했다고 함. 이에 따르면 창리해운회사는 2월 14일 훈춘에서 2천여 톤의 옥수수를 육로를 통해 북한 나진항으로 보냈으며, 이는 해로편으로 나진항에서 내달초 Ningbo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함. 이 회사는 북한측과 '나진항 1호 부두 49년 사용계약'을 맺고 지난 2011년 7월부터 약 1년간 같은 노선에서 10만톤의 석탄을 운송했으나 당시 석탄가 하락, 단일 운송물품·쌍방향이 아닌 단(單)방향 운수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적자에 시달리다가 운항을 중단한 바 있음.

기사 원문 리스트

- [2017.2.01] "北 김정은의 국산품 애호운동 실패 위기" (연합뉴스)
- [2017.2.01] 북한, 中 유커끌기 파격적 '개방관광' 제재속 외화벌이 혈안(연합뉴스)
- [2017.2.03] FAO "북한, 엘니노 영향으로 흉수·가뭄 가능성" (VOA)
- [2017.2.03] 유엔, UNDP 대북 사업 연장 보류...올해 6월 최종 결정 (VOA)
- [2017.2.06] 북한 '먹는 문제' 해결에 주력... 곡물생산 늘어 (MIDAS)
- [2017.2.06] 북한 공식장마당만 530여개...당국도 장마당에서 물건 팔아 (KBS)
- [2017.2.06] 북한경제, 장마당 성장으로 버터...올해 중국제재로 타격 클 것 (RFA)
- [2017.2.07] "유럽기업, 제재 여파 우려 대북투자 주저" (RFA)
- [2017.2.08] 북중점경 중지린성 '대북 개방정책' 천명...북중경협 물꼬트나 (연합뉴스)
- [2017.2.08] "대북제재로 구호활동도 어려움...은행 등 관련 거래 꺼려" (VOA)
- [2017.2.09] 지난해 미-북 교역, 전년 대비 97% 감소...12월 '0' (VOA)
- [2017.2.10] "北, 올초 하마스에 무기 대량 밀수출" (동아일보)
- [2017.2.17] 中훈춘-北나진-中닝보 연결 육로·해상노선 재개 (매일경제)
- [2017.2.18] 중국,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北 LPG 4천t 수입' 계약 (세계일보)
- [2017.2.18] 중국, 올해 북한산 석탄수입 전면 금지 발표 (VOA)
- [2017.2.22] 김정남 암살 여파, 北외화벌이에도 '악재' (VOA)
- [2017.2.22] 석탄수출 막힌 北, 사이버범죄로 외화벌이 가능성 (서울신문)
- [2017.2.23] 세계 곳곳 제재 동참했지만 "北 소형무기 수출은 여전" (중앙일보)
- [2017.2.28] 북한, 7년 연속 자금세탁·테러자금 위험국 지정 (VOA)
- [2017.2.28] 북한-EU 교역 3년째 감소...10년 전 1/10수준 (VOA)